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재원

새누리당 군위군·의성군·청송군

배포일시

2013. 10. 22 (화)

보도일시

배포 후 즉시 보도 가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대한민국 국회 의원회관 419 호
전화 02)784-2820, 팩스 02)788-0153 (문의 : 김원호 비서관 010-9384-3651)

예산 낭비의 전형, 한국마사회

로고 변경에 수십억원 쓰려 해

수입 감소로 공휴일 경마까지 하면서, 바꾼 지 얼마 안 된 로고 교체하려 해
8년 전에도 19억원 들여 로고 변경했으나, 부정적 이미지는 여전해
김재원 의원, “일회성 이벤트보다 꾸준한 투자로 브랜드 이미지 제고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에 따르면, 한국마사회가 만든 지 8년 밖에 안 된 회사 로고를 수십억원을 들여 또다시 변경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마사회는 용역비 3.9억원을 들여 새로운 로고를 만들었고, 지난 달 새 브랜드 선포를 위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장태평 회장의 갑작스레 사임으로 행사가 보류된 상태이다.

한국마사회는 8년 전인 2005년에도 로고를 변경하였고, 당시 용역비 3.5억원을 비롯해 서울경마공원, 18개 장외지점 등 사업장별 로고 교체 비용으로 총 19억원을 지출하였다.

한국마사회는 경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확대,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로고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005년에도 똑같은 이유로 로고를 변경했으나, 경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바뀐 게 없다. 실제로 2012년 겔럽이 실시한 ‘한국마사회 이미지 및 광고효과 조사’에 따르면, 경마에 대한 이미지는 도박, 사행성 등 부정적 인식이 54.1%였으며, 마사회에 대한 이미지 역시 경마, 도박 등의 부정적 인식이 40%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출 하락을 이유로 올해부터 공휴일에도 추가 경마를 실시하고 있는 마사회가 로고 변경 효과가 불확실한데도 10년도 채 안 된 브랜드를 수십억원을 들여 또다시 변경하려는 것에 대해 예산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마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는 로고 변경 같은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니라 건전한 경마 문화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에 의해 가능할 것”이라면서, 24일 국정감사에서 마사회에 로고 변경의 중단과 그 예산을 경마고객을 위한 투자로 돌리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